

## 도서관의 자랑



### 「白麟 사서과장」

아마 도서관에 관계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書誌學이나 韓國學을 연구하는 사람치고 白麟사서과장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게다. 그만큼 그는 도서관의 실무에서 뿐만 아니라 서지학에 있어서도 이미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또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가장 오랜 경력의 소유자며, 자기 스스로 나는 도서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할 정도로 애서가다.

사학을 전공한 것이 인연이 되어 도서관과 관계를 맺게 되었고 줄곧 2여년의 세월을 하루같이 도서관에서 살아왔다. 그야말로 그는 평생을 책속에서 책을 뒤적이며 살아온 셈이다.

그동안 그가 도서관을 위해서 일한 업적은 수없이 많다.

해방후 일본인들에게서 물려받은 도서의 새정리, 하나도 정리되지 않은 채, 더구나 6·25의 전란을 겪으며 뒤죽 밥죽이 된채 전해오는 규장각 도서의 정리, 이조시대의 고문서 정리 등의 업적뿐만 아니라 한일합방 조약문의 원본발견이나 일제시대 이등박문이 빌려간 5백여권에 달하는 도서의 발견 등이 거의 그의 노력의 결과다. 또한 그는 한국 서지학에 있어서도 一家見을 이루고 있으며 현재 출간 예정인 韓國古活字研究는 아마도 韓國 書誌學 내지는 印刷史의 總 整理가 될 것이다.

6·25 당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장서를 지킨 애서가인 만큼 씨는 제자들을 키우고 사랑한다. 지금도 한국 도서관학의 발달을 위해 바쁜중에도 틈을 내어 成大, 延大, 梨大 등에서 도서관학과 한국 서지학을 강의하시며 후배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점차 발달하고 세분화 되어가는 도서의 정리를 위해서는 서울대학교에 도서관 대학원이 세워져야 한다고 역설하는 그는 아마 앞으로도 우리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을 정도의 많은 업적을 남길게다.